

# 榮光의 얼굴들

## 大賞에 三和技研 金仁錫씨

- ... '85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영예의 大賞(大統領賞)은 「電子式 過電流릴레이(特...
- ...許 第17637號)」를 出品한 金仁錫씨(三和技研 代表), 優秀賞(國務總理賞)은 「造立式...
- ...블럭玩具를 겸한 한글숫자英文敎習具(實用新案 第27635號)를 出品한 沈載訓씨((株)...
- ...모두랑 代表), WIPO賞은 「紙幣計數機」를 出品한 崔佑淳씨(個人發明人), WIPO女...
- ...性賞은 「潛在잉크에 의한 표기를 발색잉크에 의해 표출하는 方法」을 出品한 曹玉善...
- ...여사(영 골드 代表), WIPO 青年賞은 「改良호미」를 出品한 朴仁順양(全南 장성 여...
- ...자종합고 2학년)에게 각각 돌아갔다. ....○
- ... 또 李基昌씨(尖端엔지니어링 代表) 등 4명이 金賞(商工部長官賞), 金용락씨(漢林...
- ...電子工業(株) 代表) 등 7명이 銀賞(商工部長官賞), 朴承權씨(勝利商社 代表) 등 5...
- ...명이 銅賞(商工部長官賞), 金載運씨(韓國不燃化學(株) 代表) 등 9명이 獎勵賞(特許...
- ...廳長賞)을 차지했다. ....○
- ... 學生部門에서는 金賞(商工部長官賞)은 「스치롬프 절단기」를 出品한 임경범군(김...
- ...포종합고 1학년), 銀賞(商工部長官賞)은 「실용어항」을 出品한 윤미경양(장성여자중...
- ...합고 3학년), 銅賞(商工部長官賞)은 이승하군(김포종합고 3학년), 獎勵賞(本會會長...
- ...賞)에는 「조립식액자」를 出品한 박진관군(부산여고중 2학년) 등 10명이 차지했으며...
- ...京畿開放大學 發明班에게는 研究開發費 50만원이 傳達되었다. ....○
- ... 榮光의 얼굴들을 紹介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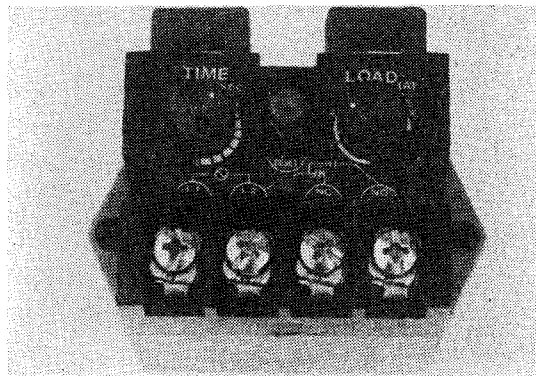
## 電子式 過電流릴레이

大賞(大統領賞)

三和技研 代表 金仁錫씨

영예의 大統領賞을 受賞한 金仁錫씨(50)는 걸 으로는 태연한 채 했으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全北大 電氣工學科를 졸업하고 電氣分野 現場에서 20餘年間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느끼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研究해 본



것이 이번 大賞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金씨가 出品한 發明品 「電子式 過電流릴레이」는 어떠한 電氣設備든 정해진 電流 이상의 무리

한 電流가 흐르면 변압기 또는 모터가 타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데, 電子式 過電流 릴레이는 이러한 過電流가 못흐르게 하는 役割을 한다. 金씨의 경우 현장에서 절실했던 필요성이 發明으로 연결된 것이다.

『材料도 전부 國産을 사용하는등 純粹한 우리 技術에 의해 開發됐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輸出에도 有利합니다. 본격 생산될 경우 市場性은 무한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金씨가 지금까지 國內에 出願한 特許件數는 모두 37件. 이중 2件的 特許와 10件的 實用新案이 登錄됐다. 또 다른 發明品인 수입대체용 고급육내배선기구는 현재 각 企業體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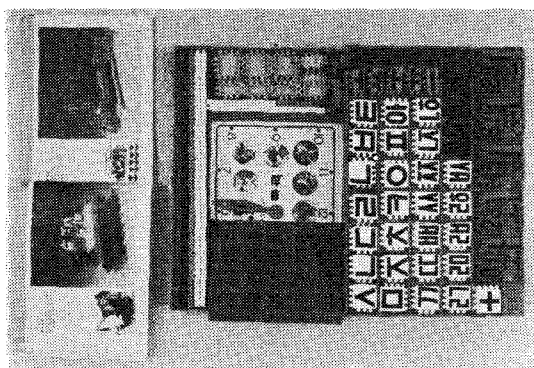
『發明은 個人이 홀로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發明人를 격려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發明이야말로 新技術開發의 견인차 役割을 한다는 점을 거듭 強調하는 金씨는 앞으로는 生業 電子分野를 파고 들겠다고 했다.

## 組立式블럭玩 具를 겸한 한글 숫자 英 文 教習具

優秀賞(國務總理賞)

(株) 모두랑 代表 沈載訓씨



『정말 기쁩니다. 이번 受賞을契機로 좀더 좋

은 發明을 하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電子玩具發明業界의 젊고 무서운 發明人 社長으로 알려진 沈載訓씨(32)는 執念과 情熱이 대단한 青年이었다.

發明人인 父親의 代를 이은 金씨는 대학 在學 중인 78年 취학전 어린이용 玩具인 「組立式블럭玩具」를 겸한 한글 숫자 英文教習具와 초·중·고 학생용 玩具인 「만능키트」를 發明,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發明人이 되어 있었다.

모 大學 電子工學科를 졸업하고 모 研究所에 入所했으나 그의 몸에 흐르는 發明人의 피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81年 金씨는 드디어 남들이 부러워 하는 직장인 모 研究所를 박차고 나와 「새싹」이라는 玩具 회사를 설립, 자신의 發明品인 「組立式블럭玩具」를 겸한 한글 숫자 英文教習具의 生産에 착수했다.

그러나 말이 會社지 무일푼으로 설립한 會社가 會社일리가 만무했다. 가까스로 제품을 生産했으나 판로가 문제였다.

그러나 金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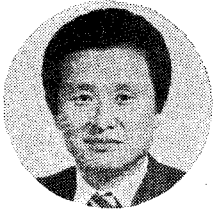
父親의 發明에 지친 母親의 反對와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기필코 成功하고자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組立式블럭玩具」를 겸한 한글 숫자 英文教習具와 「만능키트」 공히 한 제품에 20件이 넘는 特許를 出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電子玩具를 開發하는데 成功했다.

그리고 이 成功은 지난 해 10月 신용보증기금 1억2천만원의 支援받게 하였고 곧 종업원 250명의 (株) 모두랑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저는 發明을 취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發明은 반드시 事業화해야 합니다. 또 發明은 죽을 각오한 끈기로 임해야 하며 시장조사 및 판매방법도 發明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金씨는 發明 못지 않게 經營面에서도 다부진 一面을 보여주었다.

또 國內市場은 이미 석권되었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世界市場을 석권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시간문제라며 여유를 보였다.



〈金仁錫씨〉



〈沈載訓씨〉



〈崔佑淳씨〉



〈曹玉善여사〉

## 紙幣計數機

WIPO賞(WIPO事務總長賞)

個人發明人 崔佑淳씨



『이 發明을 위해 6 식구의 보금자리인 집까지 날렸지요...』

受賞소식을 傳해들은 發明人 崔佑淳씨(53)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 나이보다 10년 가까이 늙어보이는 여윈 얼굴에는 이 發明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음이 역력했다.

『저의 紙幣計數機는 틀러廻轉에 의해 計數作動으로써 各 紙幣間의 一定한 間격을 維持시켜 電子感知表示되며 紙幣間의 接着度와 분리장치의 마찰係數 調定으로 정확히 한장씩 計數되고 규칙적으로 쌓이며 1초당 25枚의 計數가 可能하지요.』

崔씨가 紙幣計數機 研究를 시작한 것은 지난 78年. 모 會社 經理담당이었던 崔씨는 紙幣計數機의 必要性을 切感, 會社까지 그만두고 研究에 沒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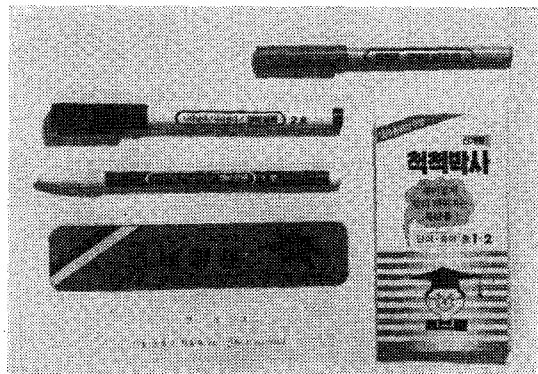
『한 마디로 刻苦的 나날이었지요.』

國內外 관련 서적을 모조리 뒤졌으나 모두가 虛事였고 이 때문 많은 時間과 研究費가 必要했고 이로인해 집까지 날리게 되었다는 崔씨의 말은 한마디로 絶叫였다. 崔씨의 所願은 이 發明의 讓受人이 나타나는 것. 崔씨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製品生産·販賣는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 潛在잉크에 의한 表記를 發色잉크에 의해, 出하는 方法

WIPO女性賞(WIPO事務總長賞)

영골드 代表 曹玉善여사



'85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어린이들의 人氣를 獨占한 「潛在잉크에 의한...」의 發明人 曹玉善여사(48)는 전직 教師.



〈朴仁順양〉



〈李基昌씨〉



〈吳世龍씨〉



〈李鍾鎬씨〉



〈金相道씨〉

이 때문인지 빨여사의 發明品(登錄 6件, 出願中 4件)들은 한결같이 어린이用 敎習具.

『이번 受賞發明品도 어린이用으로 高度의 化學反應에 의해 글자, 그림, 기호 등을 秘表하여 필요에 따라 秘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하게 하여 비밀을 완벽하게 보전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요.』

빨여사는 事業 실패로 한 때 곤경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번 發明으로 再起의 꿈에 부풀어 있다.

『女性이 發明에 沒頭하면 젊어지지요.』

빨여사는 女性 특히 주부들의 주변에는 아직도 發明의 대상이 무한하다며 많은 女性들이 發明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계속 發明에 몸바쳐 國家發展에도 기여해 보겠다며 하늘같은 꿈을 펼쳐보였다.

그런데 지난 83年 發明有功者로 國務總理表 彰을 받은 바 있는 빨여사는 가정에서는 2男1女의 어머니로도 손색이 없는 알뜰주부.

## 改良 호미

WIPO青年賞(WIPO事務總長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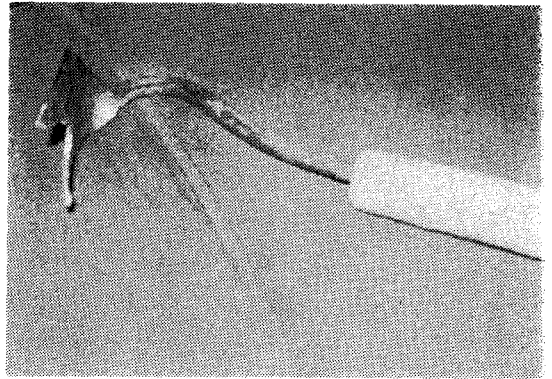
장성여자종합고 2학년 朴仁順양

受賞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얼굴을 붉히는 淳朴한 少女 朴仁順양(18)은 이번 考案으로 우리나라 最初의 WIPO青年賞을 受賞, 예비 發明人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기쁘요. 훌륭한 科學敎師가 되고 싶어요.』

수줍어 줌처럼 입을 열지 못하는 朴양의 소감이 希望.

指導敎師 金佳汝씨에 따르면 朴양은 學校성적



도 3위권안에 드는 모범생으로 室長 및 科學班長 등을 맡고 있다는 것.

이번 考案도 實習時間에 기존 호미에 問題點이 많음을 發見하고 스스로 研究에 沒頭, 自力으로 해낸 「억척 少女」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선생님의 指導덕분이예요. 선생님의 격려와 指導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연 朴양의 말.

그런데 指導敎師 金씨는 朴양외에도 高中 3학년 윤미경이 이번 展示會에서 學生部門 銅賞을 受賞하는데도 한몫을 다했다.

## 車輛門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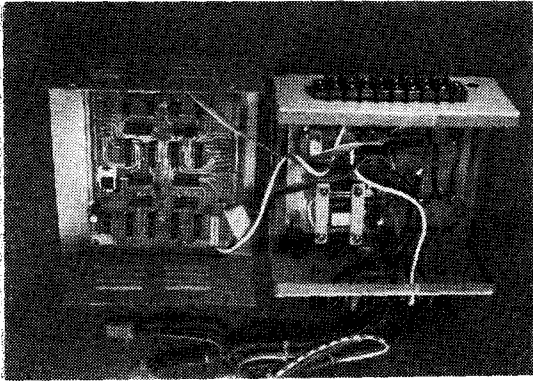
## 自動開閉 쇄정回路

機械部門金賞(商工部長官賞)

尖端엔지니어링 代表 李基昌씨

『必要는 成功의 어머니지요.』

自動車を 타고 다니다 보니 安全한 자물쇠가



必要해 求하러했으나 求할 수가 없어 스스로 發明하기로 결심했다는 李基昌씨(38)는 지난해까지 10년간 D精密工業(株)의 幹部사원이었다.

이 發明을 시작한 것은 3年前. 낮에는 會社일에 쫓겨 업무도 내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새우며 研究에 沒頭, 特許(第16976號)를 얻어 냈으며 美國과 日本에도 出願, 公開를 앞두고 있다.

『열쇠로 車門을 開閉하고 始動을 걸던 종전의 차량열쇠 制御方式을 電子回路方式으로 開閉가능하도록 했지요.』

이 發明品の 生産을 위해 지난 해 9月 尖端엔지니어링을 設立한 李씨는 이번 受賞을 契機로 尖端엔지니어링의 法人化와 확장을 서두르는 한편 의료 및 통신전자部門에도 눈을 돌려 엔지니어로서 國家發展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펼쳐보였다.

그런데 李씨의 發明品은 이미 美國·日本등과 商談이 進行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輸出도 可能하다는 것.

## 回轉式 安全개폐기

電氣部門金賞(商工部長官賞)

世一商事 代表 吳世龍씨

『結婚을 앞둔 저에게는 큰 선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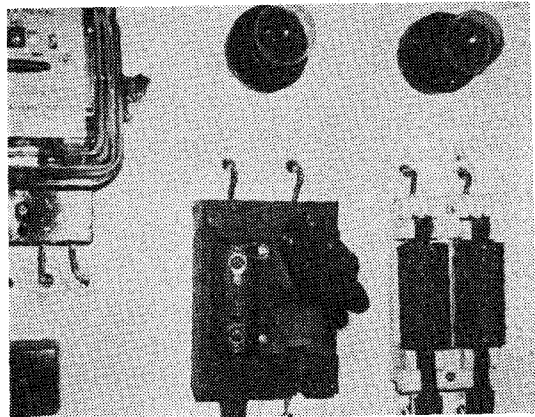
10月 6日 結婚을 앞둔 吳世龍씨(32)는 집념과 정열이 대단한 勞働者이었다. 또 發明企業人인

父親의 影響을 받아 發明人으로서의 꿈을 키웠고 끝내는 父親의 代를 잇기에 이르렀다.

吳씨가 發明한 이 器機의 機能 및 構造는 일반 가정 및 工場에서 사용하는 카버 나이프 스위치와 비슷하나 푸즈가 안전 개폐기와 달리 각 4열식 원형체의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나사를 해체하여 새로운 푸즈로 교체해야 하나 吳씨의 이 器機는 보조공구가 필요 없이 푸즈 홀더 손잡이만 앞으로 올려 90度 回轉시킨 다음 스위치를 넣으면 回路가 構成된다.

따라서 吳씨의 이 器機는 푸즈가 끊어졌을 때 푸즈를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父親의 影響을 받아 高等學校 1學年때부터 發



明에 빠져들어 高等學校 3學年 때 「자동차 흡반이」를 짚으로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고, 大學에선 電子를 전공한 吳씨에게 이 器機의 發明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모든 研究가 3年만인 77年 이미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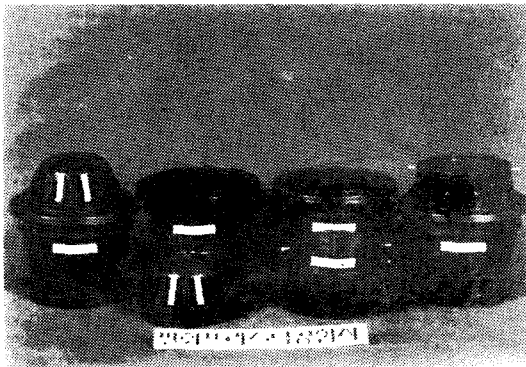
吳씨의 發明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지난 82年 4月. 軍에서 제대한 吳씨가 實用新案을 出願하면서 부터. 곧이어 科技處가 支援하는 82年 중소기업기술지원자금을 받아 시작품이 제작되어 그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投資者를 구해 企業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吳씨는 이 器機 외에도 登錄된 特許 2件, 出願중인 特許 3件, 研究중인 特許 5件을 지닌 무한한 可能性을 지닌 高급두뇌였다.

## 물받이흠통 連結

土建部門金賞(商工部長官賞)  
平和프라스틱 代表 李鍾鎬씨



弱冠에 企業을 設立, 自身の 發明을 밀거름삼아 有望中小企業을 이뤄놓은 李鍾鎬씨(32)는 이제 世界市場 進出을 서두르고 있다.

『高層建物の 각종 바닥에 형성된 집수구에 물받이 흠통을 連結함에 있어서 흠통 속으로 흘러 내리는 물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 考察이 지요.』

76年 7月 지금의 平和프라스틱 設立이전 모 建築資材販賣會社 營業部에서 일할 당시 물받이 흠통 連結部門이 취약하고 落後한데서 着案, 이 發明에 沒頭한지 10年만에 李씨는 從業員 105名·年間賣出額 10억원(84年)·發明品 20件의 꾸서운 發明企業人으로 變貌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李씨는 온갖 苦難을 감수해야 했다. 研究開發費만도 2천만원이나 必要했고, 社長인지 工員인지 分問할 수 없을 정도로 동분서주하다보니 지쳐 쓸어진 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 때문인지 그의 生活信條는 「健康」.

自身은 물론 전 종업원의 健康유지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中小企業으로서 大企業 못지 않은 職務發明補償制度를 마련, 전 종업원을 發明人으로 育成하고 있다.

## 숨쉬는 구두

雜貨部門金賞(商工部長官賞)  
브리즈製靴 代表 金相道씨



끊임없는 研究와 努力으로 製靴業界에 클로즈업된 發明人 金相道씨(40).

『5年の 研究期間을 거쳐 發明에 이르렀지요.』  
공학도 출신답게 차분히 말문을 여는 金씨는 환기 및 완충을 겸한 숨쉬는 구두를 開發, 國內市場에 선보였다.

外部로부터 空氣가 流通할 수 있는 1천여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언제나 신선한 空氣를 提供해 주는 한편 무좀 및 악취를 사전 豫防할 수 있고 환기 및 완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브리즈 구두의 특징. 특히 서울 경부고속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서 열린바 있는 本會 主催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에 出品(3月 15日~6月 14日)되어 브리즈製靴은 消費者들의 絶對的인 反應과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 企劃과 아이디어 發想을 본인 스스로가 研究 着案하고 있다. 金씨는 製靴業界의 후발 메이커로서 고충은 많지만 이분야에서 業界發展을 위해 努力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숨쉬는 구두는 國內實用新案(第23670號)과 美國特許(06/456427) 등 6件의 特許를 획득한 發明品이다. <W>